

코로나보다 무서운 '빅테크 공습'...은행장들 '디지털' 올인

<https://n.news.naver.com/article/newspaper/015/0004462976?date=20201208>

국내 은행 15곳의 은행장이 내년도 가장 큰 위협 요소로 '빅테크(대형 IT기업)'의 공습'을 꼽았다. 코로나19 사태의 후폭풍은 최소 내년 말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은행장들은 내년 위기의 파도를 넘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디지털' '리스크 관리 강화' '비이자 이익 확대' 등 세 가지를 제시했다.



본문
(본문 내용 복사)

7일 한국경제신문이 국내 15개 은행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 경영의 가장 큰 위협 요소'를 묻는 질문(2개까지 복수 응답)에 가장 많은 응답자(14명)가 '빅테크 및 핀테크와의 경쟁'을 지목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침체'가 위협 요인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이보다 적은 12명이었다. 이번 조사에는 신한 국민 하나 우리 농협 SC제일 씨티 부산 경남 대구 전북 광주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15개 은행장이 참여했다.

은행장들은 내년 '빅테크·코로나19발(發) 리스크'가 은행권을 다각도로 압박할 것으로 전망했다. 마이데이터와 종합지급지시결제업이 허용되면서 빅테크 업체가 사실상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은행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지성규 하나은행장은 "코로나19 이후 금융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더욱 빨라졌다"며 "핀테크가 점점 영역을 확대하고, 비금융 빅테크·플랫폼도 지급결제와 송금 등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를 넓히는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권광석 우리은행장은 "경쟁 심화로 업권 내 수익성이 악화할 게 뻔하다"고 했다.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등에 따른 후유증도 걱정거리로 꼽혔다. 손병환 농협은행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충격이 본격화하면 내년에도 올해와 비슷한 규모의 충당금을 쌓아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은행장들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 '코로나 충격'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허인 국민은행장은 "여신 건전성 약화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총당금을 적립할 것"이라며 "투자금융 등 비이자 부문에서 핵심 성장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데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은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에 기초한 신용 평가 모형을 더욱 고도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p>채용·구조조정도 '디지털'이 화두</p> <p>은행장들은 빅테크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디지털 역량 강화'를 생존 키워드로 제시했다. 은행 15곳 중 11곳이 디지털 부문 투자를 올해보다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리스크 관리 말고도 프라이빗뱅킹(PB), 자산관리(WM) 정상화를 통한 비이자 부문 강화도 주요 전략으로 꼽혔다.</p> <p>점포 효율화와 인력 채용에서도 '디지털'이 '최우선 가치'라는 답변이 많았다. 올 들어 가속화한 지점 통·폐합 및 축소 트렌드도 지속될 전망이다. 내년 지점 축소 및 확대 계획을 묻는 말에 8명은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했고, 4명은 '더 줄이겠다'고 했다. 늘린다는 답은 없었다. 신한·하나은행장은 "디지털 전환으로 인한 점포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답한 은행장들도 "거의 모든 은행 업무를 모바일로도 할 수 있게 돼 대면 채널을 혁신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p> <p>반대로 '디지털 경력직'에 대한 선호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진 행장은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디지털 인력 수시 채용은 늘릴 것"이라고 했다.</p> <p>사모펀드 사태 극복 총력</p> <p>은행장들은 잇단 사모펀드 사태로 실추된 PB 부문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진 행장은 "PB 전용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하고, 모든 고객의 자산관리 수준을 높이는 맞춤형 서비스를 구현할 계획"이라고 했다. 지 행장은 "자산 관리에도 비대면화가 트렌드"라며 "소비자 주도의 셀프 비대면 자산관리 시스템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손 행장은 "고객 보호, 상품 판매, 비대면 대응 등 자산 관리 전 분야에 디지털을 적극 도입할 것"이라고 했다.</p> <p>은행장들은 공통적으로 코로나19 이후 강조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허 행장은 "ESG 경영은 시대적 트렌드"라고 했다. 박종복 SC제일은행장은 "ESG 분야에 투자할 기회를 주면서 은행의 '선한 영향력'을 높이는 'ESG 셀렉트 펀드'를 내년에 내놓을 예정"이라고 했다. 황윤철 경남은행장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ESG 경영체계를 마련하고, 지역상생 활동을 강화하는 게 은행의 덕목"이라고 했다.</p>
정리	<p>✓ 마이데이터와 종합 지급 지시결제업이 허용되면서 빅테크 업체가 예금과 대출을 제외한 은행의 모든 업무 수행 가능</p> <p>✓ 빅테크 업체와 경쟁하기 위한 은행의 전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이자 이익 확대<ul style="list-style-type: none">- 투자금융 등 비이자 부문에서 핵심 성장 비즈니스를 발굴하는 데 집중- 리스크 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에 기초한 신용 평가 모형 고도화- 프라이빗뱅킹(PB), 자산관리(WM) 정상화를 통한 비이자 부문 강화● 디지털 역량 강화<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객 보호, 상품 판매, 비대면 대응 등 자산 관리 전 분야에 디지털을 적극 도입● 사모펀드 사태로 실추된 PB 부문의 신뢰 되찾음<ul style="list-style-type: none">- PB 전용 디지털 플랫폼을 신설 & 모든 고객의 자산관리 수준을 높이는 맞춤형 서비스 구현● 환경, 사회, 지배구조(ESG) 경영 더욱 강화
추가조사할 내용 또는결과	<p>✓ 프라이빗 뱅킹 (P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은행들이 높은 수준의 소득이나 상당한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큰 개인 고객(HNWI)에게 제공하는 뱅킹

-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단골 우량고객 확보를 위해 프라이빗 बैं킹 팀을 운영
-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수익률을 극대화
- 리스크를 낮추기 위해 예금과 대출에서부터 증권정보의 제공
- 세무·법률 상담 등 은행 밖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 이르기까지 자산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
- 채권, 선물, 옵션, 부동산, 리츠 등에 이르는 다양한 상품들을 대상으로 포트폴리오를 작성하고 그에 대한 조언 및 관리

✓ 사모펀드

- 49인 이하의 투자자에게 자본을 출자받아 기업이나 채권, 대체 투자 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얻는 펀드

✓ 라임자산운용 사태

- 라임자산이 운용하는 펀드는 모펀드 4개 아래에 아들 펀드 173개가 딸려있어 아들 펀드에서 돈을 모은 투자금으로 모펀드에 투자를 하는 형태
 - 문제가 된 펀드는 모두 4개이며 당장 현금화하기 힘든, 즉 유동성이 떨어지는 사모사채나 메자닌 채권, 무역금융 등에 투자함
 - 만약 환매요청이 일시적으로 몰리면, 당장 환매가 어려우니 새로운 펀드를 만들어서 모은 투자금으로 기존 환매요청을 한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줌
 - 자산운용사에 돈을 빌려줬던 대형 증권사와 같이 짜고 투자자를 속인 정황이 드러남
- ➔ 해외 무역 투자를 했는데 그곳이 부실하다는 걸 알고도 신한금융투자와 공모해서 투자자를 계속해서 모음